

지역 소식 통

부안군, 25-28일 해돋마루
지방정원서 무료 물 나눔

부안군은 해돋마루 지방정원 황토맨발길 시점에서 해돋마루를 찾는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물 나눔 행사를 오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지친 군민들에게 나눔행사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맨발 걷기를 즐기는 이용객과 산책하러 나온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황토맨발길 시점에 시원한 생수를 비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만든다

정읍시가 청년지원사업 45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당분회 의실에서 '2026년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정책 전문가와 시의원, 청년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관리 등과 관련된 45개 청년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 그간 성과도 공유했다.

이어 '정읍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안(2027~2031)'에 담긴 향후 5년간의 정책 미래상과 분야별 추진전략, 핵심 과제를 살펴봤다.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여름철 방역체계 강화

보건소 중심 체계적 방역활동 추진... 연무소독 방식으로 타지자체 벤치마킹 잇달아

고창군이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통합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방역기간(5~10월) 관내 574개 행정리 1,416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권역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한다.

마을간길을 비롯해 풀숲, 공원, 주거밀집지역 등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해 감염병 매개 해충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연무소독은 물과 살충제를 일정 비율로 희석한 약제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여름철 위생해충 방제에 효과가 높다.

군은 민원처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방역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건소 중심의 통합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 이러한 연무소독 운영 방식은 방역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인정받아 최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신장,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에는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운영한다. 자외선 램프를 활용한 친환경 포충기는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생해충 방제 효과를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 접수

문화체육·애향봉사·농산업경제·효행선행·명예시민의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청 총무과로 내달 21일까지 제출

정읍시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2026년 정읍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23일부터 추천받는다.

정읍시민의 장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각 분야에서 위상이 된 시민과 출향 인사를 발굴해 매년 수여하는 정읍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선발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애향봉사 △농산업경제 △효행선행 △명예시민의장 등 5개 분야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시민 가운데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다만 애향봉사장과 명예시민의장은 주소와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시 단위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학교장, 정읍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읍시청 총무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후보자별 공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은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 최고 권위의 상인 만큼 지역사회와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훌륭한 분들이 선정돼야 한다"며 "각 분야에 숨은 공로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www.jeongeup.go.kr)에서 확인하거나 총무과(063-539-51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주형 고창소방서장, 첫 현장 행보... "안전한 고창 만들기 최선"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예방 위한 현장지도 나서

고창소방서 시주형 서장은 지난 21일 오후 3시, 고창군 고수면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8대 고창소방서장 취임 후 첫 공식 현장행보로, 대형 공사장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 서장은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피난 동선 및 초기 대응체계 △소방시설 설치 진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작업자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기간 동안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형 물류시설 공사현장은 용접·용단 작업과 가연성 자재 사용이 많은 만큼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주형 소방서장은 "재난은 대응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공사현장의 작은 위험요인도 간과하지 않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관계인과 지속 소통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고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마철 벼 도열병·멸구류 사전 방제 중요"

정읍시농기센터, 고온 다습 장마철 대비 철저한 벼 관리 당부

정읍시가 장마철 일조량 부족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벼 도열병과 멸구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가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벼 도열병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병해다. 잎과 마디, 이삭목 등 벼의 생육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병이 이삭목과 이삭까지 번지면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세심한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벼멸구는 6~7월경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이동성 해충이다. 벼 줄기 아랫부분에 모여 즙액을 빨아 먹기 때문에 피해를 본 잎은 노랗게 변하고, 심하면 벼가 말라 죽는다.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에서 날아온 벼멸구의 1세대 약충이 발생하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약제가 벼 포기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묻도록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논 관리도 필요하다. 농가는 논 물꼬를 미리 정비하고 침수된 논은 신속히 물을 빼야 한다. 이후 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댔다가 빠는 '논물 갈러대기'를 통해 뿌리의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병해충 발생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초기에 등록 약제로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읍지역 1도작 중만생종 벼의 출수기(이삭이 패는 시기)는 8월 15일 전후로 예상된다. 수확량을 늘리고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삭거름은 출수 약 25일 전에 복합비료(NK 18-0-18)를 10a당 10kg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장맛비가 길어져 흐린 날이 이어지거나 벼 잎이 짙은 녹색을 띠면 웃자랄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염화加里(3kg/10a) 위주로 시비하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벼 병해충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조기 예찰을 통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와 생육 상태에 맞는 비료 주기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폭염 대응 가족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부안군은 폭염에 취약한 양돈·가금 축산농가에게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응 스트레스완화제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157농가 약 717만 7000마리이며 각 읍·면사무소

를 통해 공급했다. 이에 따라 군은 폭염에 대비 신속하게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가족재해보험 지원 10억 6800만원,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약품 8800만원, 폭염 대비 예방장비 지원 1억 6000

만원, 축사화재안전 지원 35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약 13억원을 들여 축산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철저히 하는 한편 농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름철 재해를 사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